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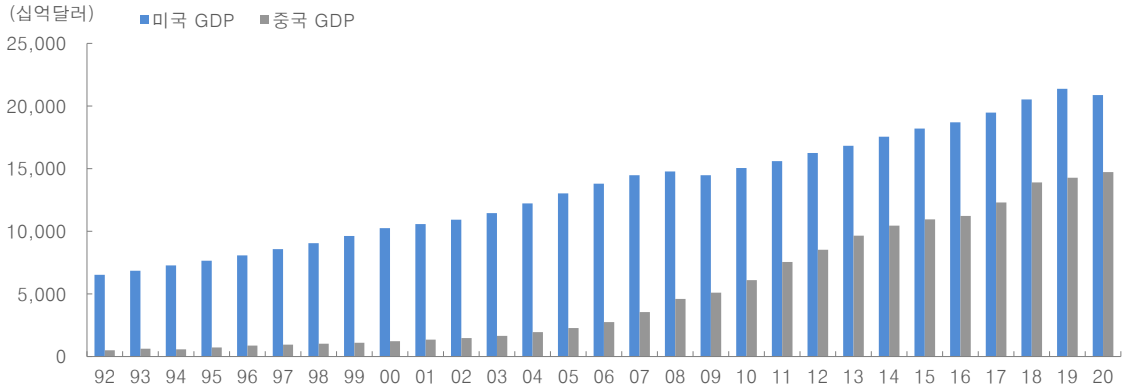
Global Strategy

G2 갈등, No end in Sight

Global Strategist 문남중
namjong.moon@daishin.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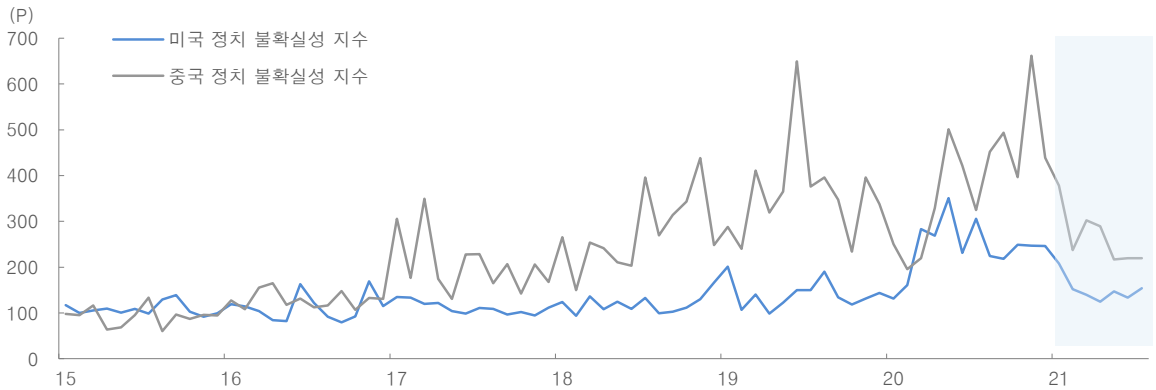
- 하반기는 미국과 중국간의 관계에 대해 새롭게 정의를 써 나갈 가능성이 크다. G2간의 관계를 함축하면 'No end in Sight' 끝이 보이지 않는다고 표현하는게 적절할 것이다. 기존 강대국 미국과 신흥 부상국 중국과의 패권 다툼은 하루 이틀 된 얘기는 아니지만, 코로나19 이후 중국에 대한 미국인의 반중국정서가 커진 만큼 철저히 이익과 손해를 따지게 됐다. 즉 상대방의 이익은 나의 손해라는 인식이 만연해지면서 양국간 갈등은 지속될 수 밖에 없게 된 것이다.
- G2간의 갈등이 커진 근본적 원인은 1978년 개혁개방 이후 빠른 경제 성장을 통해 미국 턱밑까지 쫓아온 중국의 경제적 부상이다. 2017년 구매력기준으로 중국의 GDP는 19.8조 달러로 미국 GDP인 19.5조 달러를 상회하면서 미국이 느낀 위협의 강도가 달라진 것이다. 절대규모 기준으로도 2030년 미국을 추월하고 2050년에는 2배로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중국이 금융시장을 개방하고 중국 국채가 JP모건, 블룸버그 바클레이즈 지수에 포함되고 2021년 10월 FTSE의 글로벌채권지수(WGBI)에 편입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국제금융시장내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위안화도 전세계 외환보유액에서 위안화 비중이 2016년 1.1%에서 2020년 2.1%로 상승했고, 향후 7%까지 높아지며 3대 통화로 부상될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다.
-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정책은 트럼프 전 행정부와 마찬가지로 강경한 대중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이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인권문제와 함께 첨단기술, 공급망 분야 등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동맹국과의 연대를 통해 중국을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실제로 트럼프 집권시기 악화된 유럽연합(EU), 캐나다 등 가까운 동맹국과의 관계개선에 나서고 있다. 실례로 중국중심의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을 견제하기 위해 CP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재가입을 포함한 연대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 향후 G2간의 디커플링은 지속될 것이다. 미국은 미국인에 의한 미국내 생산이라는 정책, 중국은 기술자립과 내수경제구축을 중장기 핵심 경제정책으로 내세우고 있다. 미국의 전체 무역 가운데 중국 비중은 2017년 16.6%에서 2020년 14.1%까지 축소됐고 중국은 전체 GDP 대비 수출비중이 2006년 34.9%에서 2020년 16.5%로 하락해 내수위주의 경제로 전환되고 있다. 물론 양국간의 관계 변화가 갈등관계로 획일화되기 어렵다. 기후변화 등 글로벌 문제해결을 위한 중국과의 협력도 필요하고 미국 기업들의 중국시장 진출 규모가 커지는 상황에서, 관계를 악화시키는 정책노선만을 꺼내들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올해 10월 예정된 G2 정상회의에서 G2 정상간 회담이 개최될 가능성이 크다. 7월 방중한 셔먼 국무부 부장관은 바이든 집권후 첫 중국을 방문한 고위인사라는 점에서, 빈손으로 돌아갈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 10월 G2 정상회담과 11~12월 연말 소핑시즌으로 이어지는 정치, 소비 이벤트가 4분기 미국 증시 상승을 견인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8~9월은 좋은 에너지 응집 구간이 될 것이다.

그림 1. 미국, 중국 GDP 규모. 2030년 중국 GDP 규모가 미국 GDP 추월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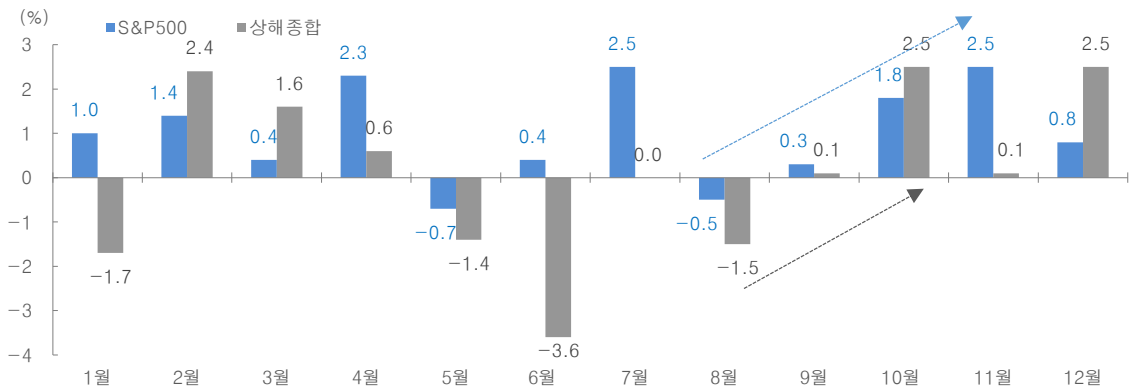
자료: CEIC,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2. 미국, 중국 정치 불확실성 지수. 트럼프 전 행정부만큼 불확실성이 커질 가능성은 극히 낮은 상황



자료: Bloomber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3. 10월 G2 정상회의, G2 정상간 회담 개최 가능성 농후. 정치적 이벤트가 이끄는 G2 상승장세 기대



주: 월별 수익률(2010~2019년)

자료: Bloomber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Compliance Notice

금융투자업규정 4-20조 1항5호사목에 따라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으며,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본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였습니다.
(작성자: 문남중)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Research Center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